

김영록지사,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고위급 회담

해남 가바쌀 수출 계기 방문, 항조별묘 등 중국 인연지 시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전남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번 내방한 싱하이밍 대사는 제8대 주한중국대사로 지난 1992년부터 4회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관련해 총 25년간 일해 온 중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졌다.

포럼, 장시성과 고위급 화상회담 등을 하반기 중국 교류사업을 비롯 전남형 그린뉴딜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을 알리며 관심을 당부했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 28년 만에 외교적으로는 신뢰, 경제적으로는 융합 관계를 형성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전라남도의 대중국 교류를 위해 재광주 중국총영사관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사라진 145명은 어디에.

매년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실종신고가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5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 접수는 2016년 38,281건, 2017년 38,789건, 2018년 42,992건, 2019년 42,3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도 30,14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8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8,907명 중 4,358,537명, 장애인은 344,594명 중 94,381명, 치매환자는 612,724명 중 158,317명만이 지문을 등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 50.2%, 경기 북부 48.2%, 경기남부 50.1%, 서울 50.2%, 충남 50.6%, 전북 50.8%, 충북 53.5%, 대전54.3%, 부산 54.4%, 경남 55.1%, 광주 55.5%, 강원 46.0%, 전남 57%, 울산 57.6%, 인천 59.3%, 대구 61.5%, 경북 62.3% 순으로 지역별 지문등록 편차가 컸다.

최재은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특별강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용기·사회적연대”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2-23일 개최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에 강사로 참석해 ‘해고 없는 도시 전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들을 한 끝에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들까지 힘들어져 근로자 해고를 막는 게 현안으로 대두됐다”며 “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업체들을 설득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4월 21일 79개 사업장으로 시작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현재 1119개까지 늘었다. 업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전주시는 이들 업체에 고용유지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차보전 연장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부 지원 분 지원 지방세 유예 등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연대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노동사회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3일까지 열린다.김승수 시장은 ‘새로운 노동사회 구축을 위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스페셜 세션에 특별 초청돼 강연을 했다.김 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업체 노사 등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가 중요했다”며 “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용산구, '할로윈데이' 앞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해 주세요”

서울 용산구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추진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이다.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청소 및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있다.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상방실,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으로 나뉜다. 총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 확진자 기초·심층 역학조사, 격리치료시설 연계, 이송, 방문시설 방역소독 등 실시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현장 상황대응반은 30~31일 이틀간 이태원 일대 주요 밀집지역에서 운영된다.구 직원 10명이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방역 위해요소를 살피기로 했다.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즉시대응 및 동향보고 유관부서·기관 지원 요청에 나선다.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점검대상은 총 174곳이며 7개반 14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간다.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소음 발생도 규제 대상이다.확성기를 켜거나 음악, 행사 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면 구는 즉각 현장 소음측정 및 계도에 나선다.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시에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 외에도 구는 불법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등에 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5개반 40명을 투입,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이태원 일대 옥외간판,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장 등 점검도 2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매년 할로윈 기간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몰렸다”며 “서울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정부 및 서울시에 방역 대책 수립을 건의했으며 경찰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서울시는 오는

24, 30, 31일 3일간 시 경찰청, 식약처,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이태원 일대 식품점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민간 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도 자체 방역 및 순찰, 게이트웨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클럽 발 확산으로 구청은 물론 지역 상인들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 왔다”며 “올해만큼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각 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10개 국립대병원 5년간 임직원·가족 의료비 1122억원 감면

서울대병원 397억원, 부산대병원 150억원, 전남대병원 141억원, 경북대병원 87억원

국립대병원의 적자운영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가족의 진료비 감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들은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총 133만건, 1,122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대다수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감면액은 서울대병원 3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순이었다.문제는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감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은 감소하고 있으나, 작년 경상대병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265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9억원의 의료해택을 지원했다.이탄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 그 가족과 임직원의 의료비로 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스스로 감면했다 병원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료비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귀성기자

서울시, 문래 스틸아트 공모전 수상작-기계금속집적지 사진 전시회

서울시, 영등포구, 포스코건설, 서울소공인협회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의 사회공헌 및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서울시는 10월26일~10월31일까지 6일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더샵 갤러리에서 ‘Steel Art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와 문래 기계금속 집적지 사진전’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영등포구, 포스코건설, 서울소공인협회의 가 함께 민·관협력해 마련했다.서울시는 포스코건설과 문래동 기계금속장인들의 자생단체인 서울소공인협회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공부 공모, 사진전에서는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Steel Art 공모전 선정작과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역의 특성이 담긴 사진 28점이 포스아트 기술과 만나 제작되어 전시되며 전시회 기간인 ‘20.10.27 이후 4시에 선정작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Steel Art 선정작은 포스코 건설의 주관으로 ‘20. 9.7~10.31까지 문래동 금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 선정작 4점을 전시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포스코 건설 더

샵 아파트 로비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문래동 기계 금속집적지 사진전에서는 문래동 기계금속지의 전경, 서울시에 남아있는 대장간, 문래창작촌의 조형작품, 문래 기계금속집적지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공정과, 문래동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진작품 28점이 전시될 예정이다.또한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과정과 계획이 담긴 판넬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 경과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진행중인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민관협력 성과로 문래동의 기술력을 서울시민과 바이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됨으로써 민간기업과 소공인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감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에서 산업 터전을 지키고 있는 기계금속장인들의 기술력은 가장 큰 자산이자 잠재력이다.포스코 건설과 같은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기존산업 혁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시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0 STEEL ART 공모전 포스터. 포스코건설 X 문래동 STEEL ART 공모전. 주제: 공동주택 로비 또는 커뮤니티 공간 등의 벽면에 설치 가능한 스틸아트 제작. 참여대상: 문래동에서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참여방법: 소공인이 스틸아트 디자인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디자이너와 함께 팀을 이루어 참여. 공모요청 및 신청서류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에서 확인. 일정: [1단계] 디자인 접수: '20.09.08 ~ '20.10.05, 1차 심사/결과발표: '20.10.06 ~ '20.10.07, [2단계] 제작: '20.10.09 ~ '20.10.23, 작품 전시회/시상: '20.10.26 ~ '20.10.30. 심사기준: 1차 심사: 창의성(30), 적합성(30), 안전성(20), 보편성(20), 2차 심사: 완성도(40), 조화성(40), 1차 심사결과(30). 스틸아트 사이즈 / 중량: 가로: 최소 1.0 m ~ 최대 1.7 m, 세로: 최소 0.7 m ~ 최대 1.5 m, 두께: 최대 8cm, 중량: 최대 25kg. 상금: 최우수상 1명: 7백만원, 우수상 3명: 6백만원. 문의처: 포스코건설 ☎ 032-748-3670, (사)서울소공인협회 ☎ 02-3667-8288,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02-2168-8066. 후원: POSCO, 포스코건설, MVL, 서울소공인협회.

김경수 “부마와 광주는 하나, 연대 통해 생활속경제적 민주주의로”

“부마와 광주, 힘 합해 대한민국·동북아 지역민주주의 모범 만들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마와 광주는 하나, 한 형제, 한 뿌리”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특별세션 - 부마와 광주, 기억·계승·참여’에서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함께 광주를 찾아 5·18묘역을 참배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시 방문 이유를 묻는 광주지역 언론의 질문에 “부마와 광주는 하나, 한 뿌리에서 난 한 형제와 같다”고 답변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참여했던 부산 국제영화제 특별세션 ‘리멤버 부마’ 다큐영화 중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더 묵숨 걸고 싸웠으면 광주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늘 가슴에 한이 된다”는 부마항쟁 참가자의 인터뷰를 상기하며 “부마와 광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좌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됐는데, 이제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생활 속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해당 세션의 기조강연을 맡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토론자로 참여한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설립일 상임이사 등에게 감사를 전한 김 지사는 “부마와 광주가 힘을 합해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시아 세계의 지역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고 실현시키는 모범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축사에 나선 5·18재단 조진태 이사, 부마항쟁기념재단 설립일 이사는 각각 “부마와 광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신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적 자산, 살아 꿈틀대는 기억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과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독립, 호국, 민주라는 가치가 이어져왔는데 ‘민주’가 가장 어려웠고 위정자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이 분열돼 왔는데, 부마와 광주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자”는 소감을 전했다. 한홍구 교수는 “놀라운 붕괴, 거룩한 좌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부마와 5.18 두 항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두 항쟁을 별개의 또는 서로 대립하거나 경합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지역감정이라는 우리 눈에 낯선 시각을 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1987년 이후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약점을 노동



운동의 중심지인 경남에서부터 극복해야 하며 앞으로 부마와 광주의 성과를 내면화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경남연구원 남종석 박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양 지역 시민들이 함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두 항쟁의 기억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승화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인용/기자

지자체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격차 상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경기도 최다, 경남, 서울시, 부산시 높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두 지자체 간 격차는 약 9배였다. 경남은 52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았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가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제주도였고 세종시, 강원도, 전남, 경북이 주민수가 적었다. 공무원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였고 경기도, 부산시, 경북, 인천시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였고 세종시, 광주시, 대전시가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경북, 전남, 충남, 강원였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

은 서울시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47명,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25명, 경남이 2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시군구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김은혜 의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펀드하자치유문건, 사태 특검으로 규명해야”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 중 ‘불현물류단지’와 관련한 기록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 ‘불현 물류단지’ 사업 절차와 현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자 치유문건은 ‘불현물류단지’에 대해 ‘불현물류단지 : 경기도 정식인허가 접수 완료, 채동욱 고문 경기도지사와 면담 -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로 적시하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불현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든코어가 당초 이재명지사가 밝힌 4월 28일 보다 3주 앞선 4월 7일에 실시 계획 승인요청서를 최초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부터 이재명지사의 경기도는 자문위원을 통해 골든코어의 금융사 변경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으며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보완사항에는 금리와 대출규모, 상환기간 등이 포함돼 채원조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8년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당시에는 없었던 옵티머스가 골든코어의 금융조달을 담당하는 금융사로 새로 구성됐다. 경기도에 4월 28일 보완제출된 ‘불현물류단지’와 관련한 투자 의향서는 ‘옵티머스자산 운용 주식회사’명으로 작성되어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주 불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요청서’에 따르면 불현물류단지의 사업자인 ‘골든코어’가 작성한 토지조서상에서 상당수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쓴 사람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00 00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던 유00씨로 되어 있다. 현재 유00씨는 150억원 횡령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김은혜 의원실이 해당 부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올해 2월 임의경

매가 개시된 상태로 땅 주인이 언제 바뀔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사업인허가를 기각 시킬 수도 있는 사항으로 당초 시행사측이 형식요건이 결여된 서류를 접수했으며 경기도 또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 접수를 완료하고 5월 11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라는 조항을 붙여 총 55개의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며 협의 절차를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의 물류지정 평균 소요 시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당초 광주에 신규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6만 3천평, 576억원 사업규모의 불현물

류단지의 경우 4월 28일 최종 승인 요청서 접수 이후 5월 1일 실시계획 공고 공람,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8월 28일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받는 등 차질없이 절차를 밟았다. 특히 20년 6월 물류단지 투자사로 되어 있는 옵티머스가 5천억원 펀드 미환매 등 대형금융사태를 났다는 보도 직후 사업 시행자에게 채원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받아냈는지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이뤄졌으나 경기도 측은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채동욱 전 옵티머스 고문과 만나 불현물류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질문을 하자, 이 지사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재판도 있었고 개인신상 등 정치적 입지 등의 도움받을 수 있으니 만나 보자고해서 만난 것이라고 추가로 답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불현 물류단지’는 경기도의 정식인허가접수를 완료했고 경기도는 사전 자문을 통해 관련내용 보

완을 받았다. 또한 공문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으며 20년 5월 8일 채동욱 옵티머스 전 고문과 이재명 지사의 만남도 이뤄졌다. 즉,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나오는 ‘불현 물류단지’ 사업 내용이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 사실에 거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허위로 의심되며 이재명 지사가 거짓 문건이라고 공격한 옵티머스 내부문건에 있는 00 뉴스테이 사업, 용인역삼 등 브릿지 및 개발투자 사업 등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현 물류단지 사업까

지 실제로 추진됐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건을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수천명의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옵티머스가 경기도 물류단지마저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편집: 박상찬 / 사장: 박유석 / 편집국장: 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 가 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등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메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경북교육청, 교육분야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 운영

경북교육청은 '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 운영'정책이 교육부 주관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이란 학교 간 공간을 초월한 원격학습 플랫폼 마련과 학습자 주도적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경북은 68.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은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의 부재, 제한적 학습 환경 등을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북교육청은 온택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1개 네트워크 학급을 선정하고 학급 당 운영비 500만원 이내 총 8,200만원을 지원했다.지원 예산은 학급 간 원격수업 플랫폼 공유, 장비 구입, 공동 수업 등에 사용된다.네트워크 학급은 원격수업 플랫폼을 공유하고 학교 간 공동 수업의 날을 운영한다.공동 수업 전 교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습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 수업을 준비한다.실시간 공동 수업 중에는 네트워크 학급 교사가 서로 협력해 학생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한다.여건에

따라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경북과 타시도 간 2학급,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간 17학급, 농산어촌 간 12학급, 총 31개 네트워크 학급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청송에 있는 진보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 우보초등학교 학생들과 zoom을 활용해 온택트 공동 수학 수업을 했으며 플립그리드에 공동 학습방을 만들어 두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소개하기, 발표하기, 문제 내기 등 활발한 학습활동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울릉도 천보초등학교 학생들과 울진에 있는 온정초등학교 학생들은 사회와 '우리 고장 소개하기' 수업을 추진했다.학생들은 울릉도와 울진의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조사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섬에 사는 친구들과 육지에 사는 친구들이 서로 배움의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 경북교육청 우수사례를 포함해 총 10개 우수사례에 대해서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최종 순위결정전이 진행된다.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3개에 투표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임종식 교육감은 "시공간의 경계



를 허물어 비대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은 농산어촌과 도시의 학교를 함께 성장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근절 SNS 릴레이 캠페인 실시

제천교육지원청, 제천성폭력상담소 동참

제천시가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성폭력상담소와 함께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온라인 캠페인은 10월 22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 캠페인은 'WE ARE HERE' 함께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제천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제천시청 공식 SNS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카드

최만식/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파리아일랜드 매각부지 등 공유재산 꼼꼼하게 챙겨

신안 사파리아일랜드 매각부지 및 해남과수연구소 통합이전지 대상 현지 활동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점검을 위해 신안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매각 부지와 해남 삼산면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조성지를 방문했다.이번 임시회에는 총 5건의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됐으며 신안과 해남 2건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장흥지원 청사 건립과 영광 흥농 119안전센터 건립 및 나주 종자관리소 행정재산 교환 등이다.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 날 신안 도초도 방문 시 기획행정위원들은 신안 부군수로부터 사파리아일랜드 매입 사유와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

에 약 80ha 규모의 사파리아일랜드를 조성해 낙후된 섬을 개발할 목적으로 2011년 11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토지이지만 경기침체와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자를 찾지 못해 2014년 9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매각할 계획이었다.이에 따라 신안군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지를 활용코자 전라남도 매각 부지를 요청했다.

신안군은 초식동물 사파리, 펫공원, 동물테마파크 개념의 아일랜드 주도 피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도초도에 조성 중인 명품 수국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전라남도는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공유재산을 신안군에 매각해 전라남도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신안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두 번째 방문지인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부지는 201,127㎡의 면적으로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사업비 282억원을 들여 13,880㎡의 규모로 연구동과 온실, 교육장, 자동시실 하우스 등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당초 해남·완도·나주 세 곳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과수연구소를 한 곳으로 통합 이



전시키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과수연구소가 통합되면 그 동안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전라남도 과수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문옥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5건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꼼꼼히 검토를 바탕으로 전라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김영만/기자

전북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재가동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전북도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남은 연말까지 성폭력 예방교육 210회, 가정폭력 예방교육 3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SNS의 사용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사이버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다.지금까지 SNS에 장난삼아 올린 사진이나 글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는 소감을 밝

히는 등 교육의 중요성이 방증되기도 했다.지난 7월 30일에는 폭력예방교육기관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대상 교육에 관한 자료와 지원, 홍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 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곳에서 폭력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일/기자



보령 성주1리 심원마을, 제2회 보령민화 어울림 축제 개최

보령시는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성주1리 심원마을 일원에서 제2회 보령 심원마을 민화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예부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예술인 민화를 소재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에는 민화그리기와 도자기 만들기, 펠트공예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심원마을 회원 및 주민, 아동들이 그동안 만든 작품 196점을 선보인다.또한 민화와 어울리는 소금 및 민요 공연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갖는다.한편 심원마을은 70~80년대에는 삼풍탄광, 성주탄광, 심원탄광, 원풍탄광 등 석탄산업의 영향으로 마을에 활력이 가득했지만,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폐광촌으로 전락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계곡의 풍성한 자연 생태와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성



수기와 비수기의 극명한 차이로 인한 고층,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성주1리 주민 동아리인 '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이 탄생하는 등 다양한 주민 참

여로 극복해오고 있다.아울러 민화를 품은 심원마을'은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문화예술공동체학교 및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정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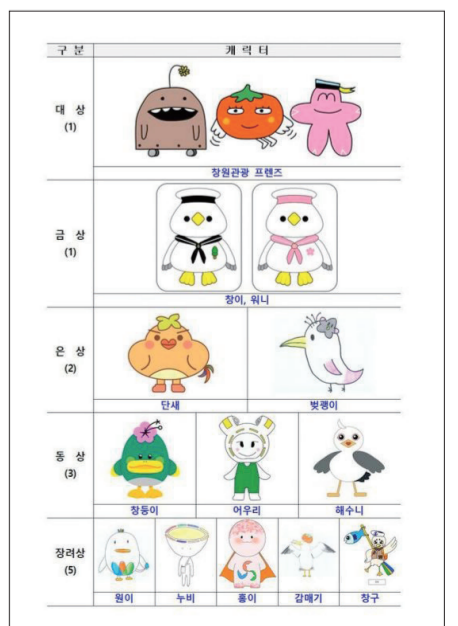
시민이 직접 만든 창원관광 캐릭터·슬로건 '탄생'

캐릭터 부문 '창원관광 프렌즈'와 슬로건 부문 '창원애 가고파' 대상 수상

창원시는 창원관광의 가치와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원관광 캐릭터와 관광 슬로건 발굴을 위해 추진한 '시민이 만들어야 창원관광 브랜드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지난 9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결과 캐릭터 부문 70개, 슬로건 부문 96개 등 모두 166개의 작품이 접수됐다.관광,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총 24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캐릭터 부문 대상은 아귀와 로봇을 합성해 만든 '아로'와 주남저수지의 철새와 단감을 합성해 만든 '감새', 해군모자를 쓴 벚꽃을 의인화한 '버찌' 등 귀여운 캐릭터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 '창원관광 프렌즈'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금상은 '창이, 워니', 은상은 '단새'와 '빛쟁이', 동상은 '창둥이'와 '어우리', '해수니,

장려상은 '원이', '누비', '홍이', '감매기', '창구' 등 12개 작품이 수상했다.슬로건 부문 대상은 다양한 관광지 중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된다면 언제나 사랑스러운 관광도시 창원으로 가보자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창원애 가고파'가 최종 영예를 안았다.금상은 '창원, 즐거움을 누비자', 은상은 '일상여행, 누비창원'와 '원하는 대로 즐겨 드림 창원', 동상은 '창원을 누비자. 행복을 누리자. 창원여행'와 '자연과 함께 걷기 좋은 힐링 도시, 창원', '맛있는 3색 힐링도시 창원', 장려상은 '참 창원', '지금 여기 창원 즐거움이 천지배까지', '바다, 산, 힐링을 여는 창 창원', '창 밖이 아름다운 그곳, 원없이 즐기자', '숨 쉬는 자연 도시, 달콤한 관광 창원' 등 12개 작품이 받았다.수상자에게는 10월 중 총 660만원의 상금과 시상 명의의 상장을 준다.수상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창원시청 1층에 전시된다.이번 수상작들은 향후 전문 디자이너가 다음에 창원관광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명호/기자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11월 9~12일 온라인 개최

“사람 중심의 세계 첨단 의료 기술도시로 거듭나겠다”

‘2020년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가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성남시는 의료 관광과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2018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 행사를 개최해 이번이 3년째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의료·관광·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관계자, 해외바이어 관광객을 직접 만나는 대신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첫날 오전 10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개막 선포를 시작으로 나흘간 의료관광·헬스케어 온라인 홍보관, 비즈니스 상담회, 콘퍼런스, 시민건강강좌가 펼쳐진다.

온라인 홍보관은 의료 관광전과 헬스케어 산업전으로 꾸며진다.

성남지역 60개사의 첨단 의료기기, 가상현실 의료 실습 장비, 방역물품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일본, 동남아 등 10여 개국의 80개사 해외바이어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해 판로를 개척한다.비즈니스 상담회는 온라인 홍보 참여 기업이 탄탄중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화면으로 만나 수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시는 상담회 참여 기업에 장비와 통역을 지원

하고 이들과 화상으로 만나 80여명의 해외 바이어는 현지 코트라를 통해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한다.의료관광, 헬스케어와 관련한 사업 이슈를 다루는 학술대회도 열린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시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님리트 영국 요크대학교 교수의 ‘멈춘 이후 의료관광 대안과 새로운 방향’, 진기남 연세대학교 교수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성남시 의료관광’,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동향과 전망’, 한현욱 차의과대학 교수의 ‘코로나시대 산업의 변화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등 16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다.이 외에 시민 대상 건강강좌가 열려 김창욱 휴먼컴퍼니 대표의 ‘코로나로 수축한 마인드 터치’, 물리치료가 알려주는 운동법 등 4개 강좌를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는 9월 20일~22일 시청 일원에서 열려 13개국 79명의 해외 바이어 의료·관광·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관계자 등 모두 2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4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도 냈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지역은 1611개의 의료기관과 1만4576명의 의료인력이 있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헬스케어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를 통해 성남이 보유한 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 중심의 세계 첨단 의료 기술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영동지역 소상공인들 돕는 2주간의 착한 소비, “함께해요”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굿바이 코로나 힘내라 영동’ 행사 열려

충북 영동군이 전 군민과 함께하는 ‘굿바이 코로나 힘내라 영동’ 행사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영동군 곳곳에서 ‘굿바이 코로나 힘내라 영동’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민 자율협의체인 영동군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관한다.군은 지역 업체 80개소가 참여하는 할인 쿠폰북을 2만부 발행해 세대별로 배부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해당 기간에는 전통시장 일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땀다 노래방’, ‘김희장을 찾아라’ 등이 진행되며 푸짐한 선물과 웃음을 선물한다.또한, 행사 진행자가 지역 관공서 점포 등을 돌며 홍보와 게임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미션맨을 이겨라’ 프로그램도 진행된다.전국 유튜브 대상으로 맛집투어 먹방을 주제로 한 ‘유튜브 먹방 공모전’도 진행돼 영동의 우수 먹거리를 전 국민들에게 알린다.동 기간 토·일요일에는 영동의 관광명소인 황간 율령봉 주차장에서 ‘월매주막’의 이름으로 영동와인 시음판매행사와 프리마켓이

총4회 열린다.행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영동사랑상품권 등 대망의 경품추첨행사가 열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전한다.군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엇보다 군은 지속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해 지역 전통을 지키고 서민경제의 맥을 다시 뛰게 한다는 구상이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영동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 돕는 2주간의 착한 소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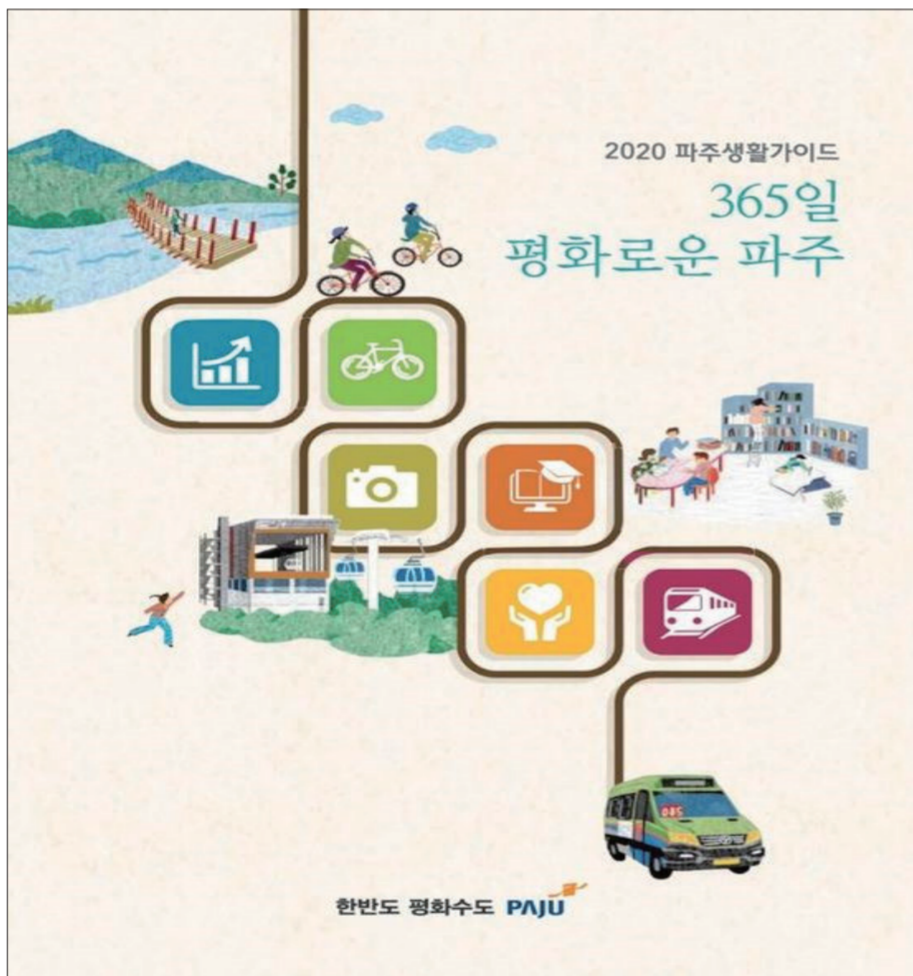
내 손 안에 파주, 2020 파주생활가이드 전자책 서비스 개시

파주시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

파주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소개하는 ‘2020 파주생활가이드’가 전자책으로 발행됐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역정보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다.특히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번역본도 제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주생활가이드에는 15개 분야, 약 80여 종의 세부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사 후 바로 해야 할 일과 각종 생활민원 정보부터 감염병 예방 수칙, 대표관광지 및 특산물 소개까지 파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파주생활가이드 전자책은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대표 홈페이지 시청·관광 홍보자료실에도 게시돼 있다.한편 기존 형태의 인쇄책자는 국문으로만 제작됐으며 파주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김영준 파주시 홍보담당관은 “전자책 서비스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비대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파주시정과 생활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도와 시군이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2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배려풀 전북’의 실천·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배려풀 전북’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를 통해 아이 가득한 더 좋은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은 화상 협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제도 개선과 배려문화 활성화 등 저출생 문제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하고자 추진됐다.

전북도는 직장 내 배려문화를 조성하며 시군별 브랜드 과제의 실천을 적극 독려 및 확산하고 시군은 ‘배려풀 전북’ 이행과 브랜드 과제의 내실 있는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배려풀 전북’은 올해 초 청내 관련 부서 실무 TF팀을 구성해 10대 중점과제를 발굴해 이행·실천하고 있으며 전 부서 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확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배려풀 전북’ 10대 중점 과제 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워라밸로 가는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눈치 안보고 쓰기” 직원자녀 출산복지 혜택 확대 임신·육아 직원 360° 배려하기 배려풀 실천 공감 확산 임신부 전용 컴퓨터 설치 시군과 함께 실천하기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확산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



함과 배려풀 전북 실천과제 이행과 출산·육아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첫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배려풀 전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추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저출산 극복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잘 이겨 나가고 있는 것은 ‘덕분에’의 ‘배려문화’라고 생각하며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배려풀 전북’이 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시군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배려풀 전북’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행사 후 도와 김승일기자

사회적경제스타트업축제 ‘대구·경북소셜벤처ON페어’개최

대구·경북 사회적경제의 160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 ‘제2회 2020 대구·경북 소셜벤처 ON 페어’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는 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대구·경북의 창업준비팀 등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선보인다.특히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공연 및 이벤트, 온라인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또 소셜벤처 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마련되고 판로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판매·체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진행된다.행사 기간 제품과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특별 판매전도 꾸러질 계획이라고 전했다.31일 오전 10시에는 부대행사로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이 진행된다.이후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기념식을 시장으로 라이브 커머스 행사, 공연, 경품 이벤트 등 주요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행사를 주관하는 대구경북 소셜벤처 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들의 방향이 흔들림이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프로그램이 실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진주시, 지역문화예술인과 간담회 가져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에 관한 의견 수렴 나서

진주시는 22일 오전 유등사랑채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지역예술인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한국예총진주시지회 주강홍 회장을 비롯해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민속 등 11개 분야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인사말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예술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는 격언을 들며 “예술가에게 시간은 금쪽 같이 소중한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또한 “진주가 문화예술도시”불리게 된 것은 한해 두해 해서 일은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온 예술가들의 창작열매가 누적되어 얻어진 결과”고 하면서 “진주는 예술가 여러분의 노고에 빚져 이렇게 찬란한 문화예술도시로의 정체성을 지금

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고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명호기자



완화된 거리두기 속, 주취사고 급증 우려

일교차 커 순환기계 질항·사망률 증가, 주취 2차 피해예방이 필요

경남 소방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주취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주취출동 12,327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취출동이 5,916건으로 전년 대비 7.7%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기간설정 : 국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이후 2월부터 데이터 분석 하지만 주취출동의 월별 건수는 전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3월 기온상승 이후 주취출동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출동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3~4월에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주취 출동이 감소했으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5월에는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812건의 주취출동이 발생했다.



6월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여파로 주취 출동건수가 전년과 같이 약한 상승세에 접어들다가, 8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8월 주취출동은 전년 대비 8.8%, 9월은 전년 대비 16.6%가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주취출동의 증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0월에는 전년 대비 주취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도민들의 안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강한 일교차에 따라 순환기계 질항 및 사망률이 급증하므로 주취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석곤 도 소방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된어도, 안전의식이 완화된 것이 아닌 된다"며 "주취사고에 대한 주의가 도민의 안전한 가을나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영광/기자

인천시 특사경, 폐기물 불법 투기 사전에 막는다

불법 방치·투기 사업장은 행정조치 및 검찰에 송치 예정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기물 불법 방치 또는 투기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집체로 인해 재활용품 분류과정에서 과생된 선별 잔재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남동구와 서구 일원의 사업장이며 폐기물 불법 방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시 투입해 신속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

한 사업장 등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군·구와 협력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는데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공주시,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개소 설치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 모두 설치 예정

공주시는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개소에 설치,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를 비롯해 시내 주요 교차로 9개소와 국도 32호 및 23호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총 20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올해 신관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 23호선은 과속 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던 곳으로 소학동~계룡면 월곡리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도시지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학교주변, 주요상업지,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 교통약자를 보호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2019년 3월 공포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속도표지판과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중섭 교통과장은 "정부의 교통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교통사고율

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2021년 2월 1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대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2% 안전 점검결과 '불량'

고층건축물 84곳 중 35곳 안전불량, 이중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8곳

대전지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42%가 안전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8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35곳이 점검결과 '불량'이었으며 이 중

8곳은 50층 이상의 초고 층 건물로 드러났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2017년 18곳, 2018년 1곳이, 2020년 16곳이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는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검결과 불량을 받은 고층건축물은 동구 2개, 서구 11개, 유성구 5개, 대덕구 12개, 중구 1개, 유성구 4개 등이었다. 한편 대전시에는 준초고층건물이 76곳, 초고층건물이 8곳이다. 국내 최대 높이 사다리차는 대전 유성소방서에 1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방헬기는 1대도 없어

임차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전의 경우 고층 건물의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소방관이 건물 옥상으로 투입돼 인명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헬기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고층건물 화재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대전시는 더 이상 임차가 아닌 시자체의 소방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카메라 고발

도심 한복판인 광명시 청사앞 시청로에 화단을 조성해 둔곳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정부/기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 실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 (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서울시-한국노바티스, 헬스엑스챌린지... 우승기업에 다각도 성장프로그램제공

11.22까지 접수,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신청 가능

서울시는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2개 기업을 선발해, 서울바이오 허브 입주권과 한국노바티스의 집중 멘토링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노바티스의 디지털 혁신 연구소인 '노바티스 바이오'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노바티스가 2018년부터 개최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기술 경진대회인 '헬스엑스월드 시리즈'를 국내에 도입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와 한국노바티스는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협력을 위한 LOI를 체결했으며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

기 위한 첫 번째 공동행사다.

제1회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의 모집 분야는 환자와 보호자의 희귀질환 인지도를 높여 조기진단을 유도하고 이후의 행동변화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 신생아 대상 척수성 근 위축증의 조기진단을 돕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다.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전세계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헬스엑스챌린지 서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기준은 활용성과 구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주제 적합성, 기술혁신성, 사업성, 서울시 기여 가능성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야별 1개 기업씩, 총 2개 기업을 선발한다. 최종 우승기업에는 연구지원금 4천만원과 함께 2년간의 서울바

이오허브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노바티스의 전문가와 연계해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제품 연구 및 개발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흥릉 일대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기업 보육 및 네트워크 거점이다. '17년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19년 연구실험동과 지역열린동이 개관되어 총 68개 우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입주 기업은 저렴한 사무공간 지원과 연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IR,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협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바이오 의료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EALTH X-CHALLENGE SEOUL

바이오 & 디지털 헬스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로 일하며 앞서 세상을 이끌어갈 여러분을 찾습니다.

지원 목적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분야 7년 미만 창업 기업 2개씩 선발

지원 분야
희귀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아 대상 척수성 근 위축증 조기 진단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지원 대상
· 국내·외에 혁신기술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헬스엑스챌린지 서울 주제 적합성, 기술혁신성, 사업성, 서울시 기여 가능성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야별 1개 기업씩, 총 2개 기업을 선발

지원 혜택
· 연구지원금 4천만원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혜택
· 멘토링, 교육, IR,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 기간
2020년 10월 22일 - 11월 22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ealth X Challenge 웹사이트: www.healthxchallenge.com
Health X Challenge 서울: HealthXChallengeSeoul@gmail.com

성북구, 만3세 아동의 소재·안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서울 성북구가 2016년도에 출생한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 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동일년도 출생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 점검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은 제외하고 가정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 258명이 대상이다. 동 주민센터 양육가정 복지플래너가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 한다.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점검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시·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즉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만3세 아동을 양육중인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만3세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16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
관망사(관)나 시외 분을 맞습니다.

만3세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란?
동년도 출생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 점검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해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행기간
2020년 10월 22일 - 11월 22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ealth X Challenge 웹사이트: www.healthxchallenge.com
Health X Challenge 서울: HealthXChallengeSeoul@gmail.com

도시의 가치가 도시를 브랜딩하다

2020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개최

인천의 도시가치를 발견하고 효과적인 도시 브랜딩을 위해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인천광역시와 집단지성을 통한 창조적인 발상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브랜딩의 해답을 찾는 '2020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을 10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가치가 도시를 브랜딩하다'라는 주제의 이번 포럼에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세계적 가치를 되돌아보고 인천 도시브랜드 글로벌화에 대해 국내·외 도시브랜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포럼은 인천 도시브랜드 소개와 기초강연,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인천 도시브랜드의 글로벌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 및 논의가 이어진다.

박남춘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플로리안 캐퍼 TPBO 편집인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기초연설에 나서고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환경 변화와 도시를 알리는 마케팅 및 브랜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 할 예정이다. 도시 문화경쟁력에 대해 토론하는 첫 세션에는 케네스 워드롭 전 영국 에든버러 영국관광청장과 윤순화

와이어반컬쳐 대표가 '에든버러, 문화 투어리즘으로 도시 브랜드를 이끈다', '인천의 문화, 인천의 브랜드를 창조하다'를 각각 발제한다. 임희운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신일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홍정수 인천관광공사 축제이벤트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는 제임스 코너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설립자와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하이라인 프로젝트, 뉴욕을 변화 시키다', '인천, 오래된 미래의 가능성 : 산업화, 재생, 도시'를 각각 발제하며 심기보 코스모40 대표, 황순우 바인 건축사무소 대표가 패널로 나선다.

도시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계도시 인천이 가진 특별한 매력에 대해 전문가 2명이 발제하고 인천 도시브랜드를 세계인의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자유롭게 논의 한다. 시모네 카레나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도시 인천을 분석하다 - 비즈니스 교통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발제하고 장동원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장은 '세계도시 인천의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이 참여해 토론 시간을 갖는

다. 이번 포럼은 줌을 통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시민들에게 딱딱하고 지루한 발제 형식의 포럼을 넘어 프리뷰 영상을 활용해 한편의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는 사전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이 답변해 줄 예정이다.

INC 2020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
Incheon International City Brand Forum

10월 27일 (화) 오후 2시 - 오후 5시

SESSION 1
RENEWING INCHON
문화, 도시브랜드 전략

SESSION 2
RENEWAL PROJECT
다자성, 도시브랜드 전략

SESSION 3
WORLDWIDE INCHON
인천, 세계도시 전략

서대문구 도시재생 기록서 '천연충현의 기록' 출간

천연동, 충현동의 역사·사람·풍경 담아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마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에 담겼다. 서대문구는 관내 천연동과 충현동 도시재생생활화 사업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최근 주민 인터뷰와 현장조사, 건축물 실측 등을 바탕으로 '천연충현의 기록'을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방적인 도시재생 간행물과 다르게 이 책은 같은 터전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이웃과 마을 역사, 주민의 애환 등을 600여 쪽에 걸쳐 촘촘하게 담고 있다.

역사, 도시건축, 생활, 사진 등 4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18세기 중엽 천연정 건립에서부터 지금의 영천시장이 생겨난 과정까지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다. 또한 첫 시민아파트로 지금은 철거된 '금화아파트',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인 '충정아파트', 사라져가는 천연동 떡곰국 등의 역사와 실측 자료 등을 기록해 지역 변화과정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천연충현의 기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자유롭게 내려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구는 천연동과 충현동주민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이 책을 비치하고 교보문고 e-book 코너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분석된 서대문구청장

천연충현의 기록

천연충현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은 "사라지고 잊혀 가는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천연충현 지역이

서울의 역사중심지이자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시민토론회' 22일 유튜브 생중계

유튜브 실시간 댓글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시민 간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민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시민토론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개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지난 7월 8일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후속조치로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을 널리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건물, 수송 등 온실가스 주요 감축 부문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부문별 이슈와 향후 전망을 논의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타거버넌스 총괄위원이 이윤진 녹색 전환연구소 연구원이 사회를 진행하고 일반시민도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이 서울시의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소개하며 건물 부문은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에너지 부문은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수송 부문은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원 교수가, 자원순환

부문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숲 부문은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 중간마다 참석자 토론과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진행한다. 시는 토론회에 앞서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자치구별 원탁회의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치구별 원탁회의는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22개 자치구에서 진행되어 구민, 환경분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엠보팅을 이용해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했다.

자치구 원탁토론회와 엠보팅 설문조사 결과는 6개 분야별 전문가 주제 발표 이후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자가 패널들과 함께 분야별 그린뉴딜 정책의 공급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의 현장 참여 대신 TBS TV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패널들의 각 발표 자료는 토론회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검색 → TBS TV LIVE 실시간 방송보기 → 실시간 채팅에 댓글

입력 서울시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태풍, 긴 장마 등 기후 위기는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편지마다 고향 못가는 아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한가득'

우수작 16편 선정, 구 소식지·블로그 공개 ... 지난달 22일-이달 11일 112편 접수

구로구가 '사랑의 손편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구로구는 추석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향의 부모님께 사랑의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모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아이디어를 낸 이성 구청장이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편지 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구청장은 편지를 통해 20여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2편의 편지가 접수됐다. 주민과 관내 직장인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부모님께 평소 하지 못했던 말,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추억, 그리움 등을 편지에 담아 사진, 스캔·전자파일 등의 방식으로 응모했다. 구로구는 지난 16일 구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16편을 선정했다. 주민 A씨는 "부질 주소가 없는 편지, 추석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나의 어머니께"고 시작하며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



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주민 B씨는 "엄마, 지금도 여전히 자식들한테 튼튼하고 강한 원더우먼 엄마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며 앞으로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버림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C씨는 어머니께 투정 부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껏 공부한답시고 취직한다 답시고 또 결혼하고는 애 키운다고 엄마께 효도다운 효도도 못하고 이제야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주민 D씨는 병문안을 가지 않게

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감난다며 "엄마와 같이 산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나눠줘 너무 고마워"고 그리움을 표했다. 우수작 중 6편은 구 소식지 11월호, 10편은 구 블로그를 통해 전문이 공개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랑의 손편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애뜻한 사랑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2020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중구,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중구가 구민 참여에 기반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0년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13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아이디어로 '환경을 생각하는 중구', '안전하게 만나는 중구', '슬기롭게 일하는 중구' 세 분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환경을 생각하는 중구'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관심이 증폭된 쓰레기 문제와 온실가스 저감처럼 환경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를 늦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안전하게 만나는 중구'에서는 돌봄·문화·생활체육 등 불가피한 대면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개선편안이나 코로나 속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을, '슬기롭게 일하는 중구'에서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 지방세 카카오톡 상담처럼 디지털화 및 모바일 서비스 전환이 가능한 서비스 정책 제안 및 비대면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를 공모하고 있다. 중구민이나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0년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방식도 추가해 국민신문고 홍보와 함께 구민의 아이디어 제안 채널도 확장했다.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1차 서면심사, 2차 위원회 평가 및 주민 모바일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 2명은 70만원, 장려 3명은 50만원, 노력 1명에게는 30만원의 시상금이 있으며 선정 결과는 12월경 구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공모전을 위해 오는 26일 중구 공식 유튜브 채널 '엘지전파사'에 정책제안서 작성법 특별 강의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의에서는 주민 정책 제안에 문턱이 없음을 알리고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방출할 예정이다. 강의는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유

튜브에서 엘지전파사를 검색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인천시, '제3회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온라인 개최

코로나19 시대 의료관광 시장 변화와 인천시 대응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시대 세계 의료관광 시장 변화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의료관광과 웰니스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인천 글로벌 헬스케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및 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실시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과 국내·외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 500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관광 산업은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2025년까지 연평균 14.4%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K-방역과 K-의료로 인한 의료의 위상은 세계 의료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의료관광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진기환 교수를 비롯해, 미국 리시대학교 트

리시아 제이존슨 교수, 독일 쾰른대학교의 클라우디아 미카 대표, 캐나다 시몬 프레이저 대학교의 발로리에 크루크스 교수 등 해외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온라인 강연을 펼친다. 포럼은 두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세션은 '코로나19와 의료관광 시장'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의료관광 시장에 관한 소고: 인천의 새로운 기회, 코로나19 팬데믹과 인천 의료관광, 코로나19와 의료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코로나시대의 마케팅:

고찰과 전략, '뉴노멀'을 위한 준비: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인증제도, 코로나 시대 의료관광객 간병 서비스의 니즈 충족 전략이라는 강연으로 이루어져, 향후 인천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훌륭한 조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해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에도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K-의료, K-방역의 위상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천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이너다해 TEL: 031.984.8245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수성알파시티에서 개최

15개팀 참가, 31일 08:00 ~ 오후 6시 수성알파시티 교통통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에서 후원하는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이달 31일 수성알파시티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격년제로 개최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R&D 성과 확산과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 자율주행 분야의 역량있는 우수 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5G 통신을 활용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대학 15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는 수성알파시티 내 도로의 각 팀별 출발지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동시에 출발, 중간에 손님을 태우고 정해진 목적지로 이동 및 도착 과정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 1등 팀에게는 국무총리 상을, 2등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3등 팀에게는 대구광역시

장상, 4/5등 팀에게는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개·폐막식은 개최하지 않으며 대회 당일 오후 1시 반경 산업통상자원부와 권역진 대구시장의 축하 영상메시지를 시작으로 대회 경과, 참가팀 소개, 대회 최종 점검 등 행사 진행 후 오후 2시경 본선 경기를 치른다. 시상식은 오후 4시경에 있을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비대면 위주로 진행되지만 참가자와 관계자 등이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주무대를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광장에 설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주행차 전시, 문화행사, 푸드존 운영 등의 부대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경진대회가 열리는 수성알



파시티 내 도로는 대회 당일인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도로통제로 인해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래 인재들이 만든 자

율주행 자동차가 수성알파시티 도로에서 마음껏 주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자체수입 증대 노력

폐교재산 임대, 유류자산 매각,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이월액 정기에금 등

경북교육청은 교육재정교부금 등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재정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폐교재산 임대, 유류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수입 275억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액 등의 유류자금을 이월이 높은 정기에금으로 운용해 98억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수입·지출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계상해 집행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방학 중 공사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과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연도 말 발생한다.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도 말 유류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반영한 4천억원의 이월이

높은 정기에금으로 예치했다. 이는 보통예금보다 17억원을 더 증대시킬 수 있으며 초등학교 9개교의 1년간 학교기분운영비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경북교육청 비용률은 1.39%로 17개 시도 중 세종, 충남, 인천 다음으로 4번째로 낮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성장 및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자체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 독려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김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9일 읍면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접수 시작

김천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할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원이나 위급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주일간 온라인 접수 건수는 53건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1일 전화상담은 100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과 병행해 19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대상자
1.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소득금액명세서
2. (필요시) 고용·임금·유급조치 소급확인서
3.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4. (필요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분증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www.kj.go.kr)
2.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2. 2020년 2월 이후 실직·휴업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기간
2020.10.19. ~ 2020.11.30.

현장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임시 채용해 전화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 마을방송서비스를 활용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몽호기자

대구시설공단, 청렴 릴레이 캠페인 개최

19일부터 본사포함 24개 사업장에서 시민 대상 캠페인 개최

대구시설공단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 동안 두류수영장, 지하상가, 동대구역광장 등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 사업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 대구시설공단이 단디한다"라는 주제로 각 사업장별 릴레이 행태로 진행했으며 직원들이 직접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어깨띠를 착용하고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메시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용품 등 기념품도 함께 전달해 시민으로부터 신



뢰받는 대구시설공단이 될 것을 약속했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소

발한 청렴문화를 만들겠다"며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과 함께 청렴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토양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울산시, '2020 태화강 정원 스토리 페어' 개최

23일~25일 '태화강에 뜬 무지개정원' 주제

울산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화강국가정원 내 대나무생태원 일원에서 '2020 태화강 정원 스토리 페어'를 개최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1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태화강에 뜬 무지개정원'을 주제로 정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성된 시민·학생작품과 울산조경협회 소속된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작품 등이 조성된다.

주요작품으로 유년의 기억, 떠나는 무지개, 작은빛 등 시민·학생작품 20개와 오버 더 레인보우, 허그 미, 태화강의 오색 무지개 등 지역공동체작품 5개 등 모두 25개 작품이다.

특히 시민·학생작품은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학생이 참여해 무지개 빛깔처럼 다채로운 색깔 등을 이용해 정경화되지 않고 창의적이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정원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기간 중 독창성, 활용 가능성, 미적 감각 표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2시 대나무 생태원에서 열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

원분야 사회진출을 꿈꾸는 시민·학생들에게 정원 조성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독도의 날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모집

'독도' '수' '비' '리'더를 찾습니다

경주시는 독도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의 독도 사랑 의식과 국토애를 높이고자 오는 31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독도' '수' '비' '리'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도 골든벨, 독도 테라리움, 독도 북아트, 독도 사랑나무 꾸미기, 독도경비대 갑사엽서 쓰기 등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꾸며져,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역사애를 높여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경주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교육 및 강좌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강당으로 총 198석이며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인 100여명 내외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0 독도의 날 프로그램
독(도) 수(비) 리(더)

운영일시: 2020.10.31.(토) 14~16시
신청기간: 2020.10.22.(목) ~ 28.(목)
신청방법: 경주공공서비스예약 (QR코드/ 선착순 100명)
체험내용: 독도 테라리움, 독도사랑나무 만들기, 독도 북아트 등
문의: 054)779-6174/ 760-2232 (청소년수련관)

홍정욱 아동청소년과장은 "독도는 우리 국토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 알리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므로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 바른 역사애를 가진 대한민

국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체험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부산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전국 최대 국비 30억 확보

부산시는 어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의 심사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0곳이 선정되어 내년 국비로 올해 15억원의 2배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전국 38곳 중 10곳을 부산시가 차지한 성과다.시는 '보행환경 개선지구' 신규사업으로 해운대 원천길 등 3곳 5억원, 계속사업은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등 3곳 14.5억원을 확보했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동구 정

공단로 등 4곳 10.5억원을 확보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구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이다.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일방통행 지정, 보도 신설 등을 시행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한 주택가 등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사업'을 시작으로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7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총 82억원을 확보했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2019년 시범사업인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사업'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총 22.5억원을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1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사람중심 걷기좋은 보행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축제 'MAMF 2020' 개막

25일 오후 2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문화다양성 토크쇼'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2020'이 오는 23~25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15회를 맞이하는 맘프는 경상남도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온라인 행사와 최소한의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됐다. 23일 온라인 개막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가 열리며 25일 '문화다양성 토크쇼 단편영화 공모전' 시상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는 행사는 맘프 2020 개막식 14개국 역사스토리 현지 맛집과 관광지로 떠나는 랜선 여행 웹툰으로 만나는 이주민 이야기 등이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 문화다양성 토크쇼, 문화다양성 단편영화공모전 등이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회 참가자 가족, 온라인 자원봉사단, 14개국 교민회 등 최소관중만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은 "슈퍼스타"에 맞추어 댄스챌린지가 14개국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진행 중이다. 아시아 유명 연예인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고 그 의미가 크다. 이 행사는 "방역수칙도 익히고 힘든 시간을 견디는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지구촌에 문화행사를 확산해 코로나19를 극복 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맘

프의 대표 행사이며 이주민 가족의 등용문인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는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수잔 사키아와 송지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8개국 11팀의 경연자가 기량을 펼치며 초청가수 3팀이 축하공연을 한다.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30분 KBS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이며 창원 KBS와 맘프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된다. '문화다양성 토크쇼'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김제동 진행으로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와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 일리아 벨라코프, 방대한, 에바 오네게, 아비셰크 굽타, 김안나 등 7명의 비정상회담 이주민 패널이 참여해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 외국인 차별, 코로나19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문화다양성 토크쇼'는 다음 달 10일 오후 7시 40분 창원 KBS를 통해 방송되며 창원 KBS와 맘프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된다.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3개 부문 '단편영화공모전' 시상식과 폐막식이 25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제동 진행으로 부문별로 시상하고 대상 수상작이 상영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폐막 인사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맘프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다른 문화의 우수성도 수용하는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장으로 올해에는 코로



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 축제를 만들어 해외가족도 참여 가능하게 됐다"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다시 볼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한 성과가 크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맘프 축제는 2005년 문화

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으나 2010년 경남으로 옮겨와 매년 9~10월 중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이주민이 증가하는 시대를 맞아 경남에서 개최되는 의미있는 행사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교육축제로 인정받았고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이다.

송인용/기자

창원시, 모두가 기다린 착한소비 붐 이벤트 다시 시작

올해의 마지막 착한소비는 창원에서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잠정 연기했던 착한소비 붐 이벤트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그동안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창원 블랙위크 & 골든프라이데이' 행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응모 기간을 거쳐 11월 16일에 당첨자를 추첨한다. 참여방식은 창원시 관내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www.골든프라이데이.kr로 접속하거나 QR 코드 스캔 후 응모하면 된다. 이번 행

사는 마지막 한 회 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경차, 스타일러, 노트북, 제습기, 각종이용권 및 누비전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당첨자 추첨은 비대면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 해 당첨내역을 문자로 전송한다. 착한 소비에 참여하는 시민은 소상공인업체 방문 시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길 바라며 해당 업체 또한 빈틈없는 방역수칙 준수로 '착한소비'와 '착한방역' 그리고 '경제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린 일상으로 지쳐가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행사가 작은 기쁨이 되길 바라며 누비전 경품의 재소비를 창원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봉호/기자

창원 블랙위크 & 골든프라이데이
 주소창에 www.골든프라이데이.kr 를 입력하세요

- 응모 기간 2020. 11. 1.(일) ~ 2020. 11. 15.(일) 00:00까지
- 응모 요건 창원시 소상공인업체에서 1만원 이상 구입
- 응모 방법 구매 영수증 촬영 후 업로드

최종 추첨일 20. 11. 16. (일)

상세 경쟁내역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 22%가 부과됩니다.

창원 블랙위크 2만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골든프라이데이 경차, 스타일러, 가전교과금, 노트북 등

이벤트 응모방법

소상공인 업체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촬영

이벤트 소관 또는 www.골든프라이데이.kr 접속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영수증 업로드

당첨자를 통보하기 위하여 100% 확인

주최: 창원상공회의소 주관: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 후원: 창원시

도청의 불합리한 관행·제도 한 번에 해결한다

'출장, 식사, 초과근무, 회의문화' 4개 주제의 조직문화 관련 토론회

경상남도가 조직 내 꾸준히 제기되던 불합리한 관행·제도 해결방안 마련으로 업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0 도정혁신 문제해결형 공동수련'을 개최했다. 문제해결형 공동수련은 KT의 '1등 공동수련'을 본따서 지난 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발굴한 아이디어를 정책결정권자 및 소관부서가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방식을 조금 달리 직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만을 최대한 압축하고 관련 부서 등이 사전 검토해 대략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공동수련 당일에는

해당 문제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공동수련과 토론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착안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 공동수련의 과제발굴을 위해 인사과의 직급별 의명제팀장과 경남도청노동조합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직원들이 평소 가장 힘들어하고 꼭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출장, 식사, 초과근무, 회의문화' 총 4개 주제를 토론안건으로 선정했으며 각 안건마다 참가자 전원이 분담 토론을 진행해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동수련으로 도출된 각 주제별 과

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출장' 공유차 서비스 도입, 출장여비 개별결제 '식사' 월 1회 자율식사의 날 운영 '회의문화' 내부회의·행사 준비절차 간소화 '초과근무' 피씨오프 날 확대, 가족사랑의 날 지킴이 도입 및 19시 이후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등이다. 이 세 부 실행방안들은 향후 내부 누리망을 통해 전 직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각 소관부서들과의 협업으로 효과성·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수련에 직접 참여했던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단순 문제제기 및 아이디어 제안 수준의 기존 공동수련들과는 달리 당사자가 직접 책임의식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도출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도청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광/기자

2020 안동 낙동강 캠핑축제 개최

캠핑의 계절 가을 맞아, 통기타·공예·요리대회 등 즐길거리 풍성

안동시가 주최하고 농업회사법인(주)원우에서 주관하는 '2020 안동 낙동강 캠핑 축제'를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등록 야영장 2개소에서 총 7회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취소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낙동강 둔지에서 매년 개최되었던 안동낙동강캠핑축제를 올해는 등록야영장 2개소에서 만나고, 계명산 자연휴양림 캠핑장과 선라이즈 글램핑 캠핑장에서 기간 순주말마다 개최한다. 통기타 및 성악, 밴드 공연, 공예 만들기 체험, 캠핑 요리대회, 한국 문화유산 만들기, 문패 만들기, 영수증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의 자연 경관

및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테마·체험·체류·휴양형 캠핑 축제로 치러진다. 캠핑 축제 참가를 원하는 캠핑러는 각 캠핑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캠핑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가족단위 캠핑 관광객에게 안동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339-8822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8점 선정

신주영 씨 作 '나주 관광 일러스트 팬시용품' 대상 영예

나주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발굴 공모전을 개최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응모작 32점 중 5개 부문별 수상작 8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나주를 상징하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발굴, 육성을 통한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지속 생산이 가능한 3만원 이하 공예품, 패션, 잡화류 등 기념품으로 나주시를 상징하는 역사, 전통문화, 자연환경, 먹거리, 관광 특성을 제품 내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친 응모 기간 동안 총 22명으로부터 32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영예의 대상은 나주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재, 관광명소를 삽화로 표현해 매모지, 손거울, 편지지 등에 새겨 넣은 '나주

관광 일러스트 팬시용품'이 차지했다. 신 씨는 "금성관, 남도문, 느리전담대, 영산강, 황포돛배까지 나주를 상징하는 관광 요소 5가지를 일러스트로 직접 디자인했다"며 "기념품 특성상 생산이 용이하면서 누구나 갖고 싶은 욕구가 들게끔 실용성과 심미성을 고려했다"고 제작 후기를 밝혔다. 금상은 남도의 진미 영산포 속성홍어를 모티브로 제작한 홍어 휴피리, 오카리나, 은상은 마한역사유물 일러스트가 새겨진 에코백, 파우치, 손거울로 구성된 '나주 & 마한 이야기 나주를 메다/담다/보다'가 차지했다. 이어 동상에는 나주배꽃 문양의 브로치, 스테인드글라스 제철로 만든 인테리어용 썬채커가 선정됐으며 '나주배꽃꾸기, 찬기 세트, 배 모양의 네임택, 열쇠고리 작품이 각각 입선했다. 나주시는 대상 300만원에 비롯해 총 1000만원 규모 상금을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오는 23일까지 나주시청 로비에 전시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만의 매력이 담긴 독창적인 기념품을 제작해준 공모 참가자들에게 감사

김영만기자

가을은 고품질 남원사과의 계절

남원 명품 후지사과 마무리 수확준비 한창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흉로사과 판매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과농가가 고품질 후지 생산에 또 한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의 사과는 183ha, 213농가로 지리산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과 고유의 향과 빛깔이 곱고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나다.

이달 하순 산동을 시작으로 운봉, 인월, 아영, 산내에서 수확되는 '후지'는 사과농가에게 올해농사를 만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서라도 적극적인 사과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과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비타민A, B1, C와 과당, 포도당, 미네랄, 각종 효소 등을 함유하고 있다. 섬유질은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과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케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좋은 사과산과 구연산 등의 유기산도 풍부하다. 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자는 "사과의 계절이다. 맛이 좋은 것은 물론 영양이 풍부한 예쁜 과일의 대표주자인 사과를 소비하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과 농가를 도울 수 있다. 지금이 계절인 사과 많이 드시고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장성군, 산골짜기 마을 물 부족 문제 해결

농업용수 체계 재편해 복일면 용연저수지 물 성덕리에 공급

장성군이 상습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던 산골 마을의 물 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 복일면 성덕리 일대는 해마다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한 농경지는 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해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형 관정이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곳에 위치한 농지까지 물을 대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장성군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통해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복일면 오산

리 용연저수지에 취수 시설을 설치해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군은 성덕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배려했다. 용연저수지 인근 몽리구역 주민들이 영농철 농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군은 설치 과정에서 저수지 방류가 필요 없는 캔틸레버 구조의 취수시설을 채택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성덕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몽리구역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홍권기자



영광군, '보리·모시잎산업 특구' 지정

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제4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광 보리산업특구에서 영광 보리·모시잎특구로 변경 지정됐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2010년 보리산업특구지정으로 20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보리경작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영광보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해왔다. 이런 도중에 지난해 전국 최대 생산지 기반을 가진 모시잎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중기부에 "영광 모시잎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위주로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고수에 따라 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기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결과, 기존 보리특구에 모시잎 산업을 융합해 보리·모시잎 산업을 고

도화하는 "영광 보리·모시잎산업 특구"로 계획변경 하는 데에 최종합의 하게 됐고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사업과 규제특례 발굴로 마침내 중기부 특구위원회에서 계획변경을 승인 받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분야 5개 특화사업으로 "보리산업 분야"에 보리 식품화 가공산업 보리생산 및 지원화 보리 융복합산업 활성화, "모시잎 산업 분야"에 모시잎 생산가공 인프라 조성 모시잎유통 운영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영광 보리·모시잎산업 특구 지정됨에 따라 영광 보리·모시잎 브랜드 강화,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조선 시가문학의 최고봉, 고산 윤선도를 만나다

제20회 고산문학축전, 10월 22일부터 고산윤선도유적지에서 개최

제20회 고산문학축전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해남 고산윤선도유적지에서 열린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으로 정철·박인로와 더불어 조선 3대 시가인으로 불린 고산 윤선도 선생은 국문학의 비조로 불리며 한문학이 주류이던 당대 문단에 우리 글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시를 발표하며 국문학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해남군은 고산 윤선도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가을 고산 윤선도 고택이 위치한 고산유적지에서 고산문학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전은 전남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학 축전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22일 오후 7시, 고산윤선도유적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퓨전 창작 국악 공연 '거문고 다섯 빛을 노래하다'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고산문학대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고산 인문학콘서트가 땅끝순례문

학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또한 고산유적지 특설무대에서 가수 정태춘, 시하풍정 담소 등이 출연하는 시노래 콘서트가 열려 가을밤의 낭만적인 정취를 가득 전해줄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청소년 시가 낭송대회를 비롯해 김준태 시인과 함께하는 시노래공연 '시시톡톡', 우수영 들소리, 해원 사물놀이패 등이 함께하는 시노래극 공연이 열린다.

한편 올해 고산문학대상은 시조 부문에는 이송희 시인의 시집 '수많은 당신들 앞에 또 다른 당신이 되어' 시 부문에는 조용미 시인의 시집 '당신의 아름다움'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신인상 시조 부문에는 장수남 시인의 시집 '격렬비 열도' 시 부문에는 김일하 시인의 시집 '먼지구름'이 선정됐다. 황지우 추진위원장은 "한국 시조문학의 선구자, 고산 윤선도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계승하고자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학과 대중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하고 선생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순천만야시장푸드트럭운영자선정·평가절차돌입

최고의 맛과 경쟁력을 갖춘 푸드트럭 선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 추진

순천시는 동천 저류지에 조성 중인 순천만 야시장의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마감하고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 지난해 1,000만 관광객을 돌파한 순천시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순천만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33명이 접수했다.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에 500여건의 지속적인 문의·상담이 이루어져 기대를 모았으나 관리비 및 푸드트럭 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접수된 33명에 대한 선정 절차를 정상 추진하고 당초 목표한 푸드트럭 운영자 50명이 되도록 추가 모집해 내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을 위해 1차 서류심사와 음식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푸드트럭 운영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현장에서 시식하는 2차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선정된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인기 메뉴 분석과 맛과 경쟁력을 갖춘 메뉴를 발굴하고 푸드트럭 운영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야시장 개장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야시장의 성공을 위해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과 함께 철저한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지닌 야시장을 만들어 순천을 찾는 관광객이 맛과 멋에 흠뻑 취해 머물고 싶은 순천,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의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해남 고구마 산업특구 "우수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기관표창 및 포상금 5천만원 받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가 정부의 2020년 우수특구로 지정됐다. 우수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190개 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해남 고구마 산업특구를 비롯한 12개의 특구가 선정됐다. 우수특구지정으로 해남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표창과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 받는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해남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오면서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고구마 연구 및 홍보 체험 등 3개 특화사업과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군은 고구마 산업특구 운영을 통해 전체 생

산면적에 무균 조직배양묘를 보급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운영과 고구마 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신산업 확대 등 해남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고구마 산업 육성에 전력을 왔다. 또한 최근에는 아이스군 고구마 등 고구마 신제품 개발과 가공산업을 역점 추진해 고구마 소비 지면을 확대해 고구마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고구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제42호로 등록되어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우수특구지정으로 다시 한번 해남고구마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집중 육성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순천만 야시장

전북 스마트관광 시대 활짝 열린다

전북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전라북도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관광콘텐츠 연구단, 전주시와 함께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기술 국가 R&D 사업을 공동협력하는 다자간 협약을 21일 전주대학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기반의 실감형 관광콘텐츠 제작 및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사업이다. 도내에는 전주한옥마을과 호남선 여산휴게소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31억 7천만원을 투입해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실감형관광콘텐츠 연구단, 전라북도, 전주시가 참여해 국가연구 R&D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내·외 여행 패턴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이 일상화되면서 관광산업 전반의 개방형 인프라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체결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국가 R&D 사업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관광 전·중·후 의사결정과 체험을 향상하기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전주향교 등을 배경으로 한 렌드마크



투어, 경기전 어진행렬 등 가상공연을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와 연계해 사전 체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VR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위치기반 가상공연, AR 내비게이션을 휴대폰 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AR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핵심사업은 디지털 트윈 실현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주요지점 관광객 계수를 측정하고 3D지도 구축을 통해 혼잡도 여부를 파악·활용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감형관광콘텐츠 연구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와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콘텐츠 확보와 홍보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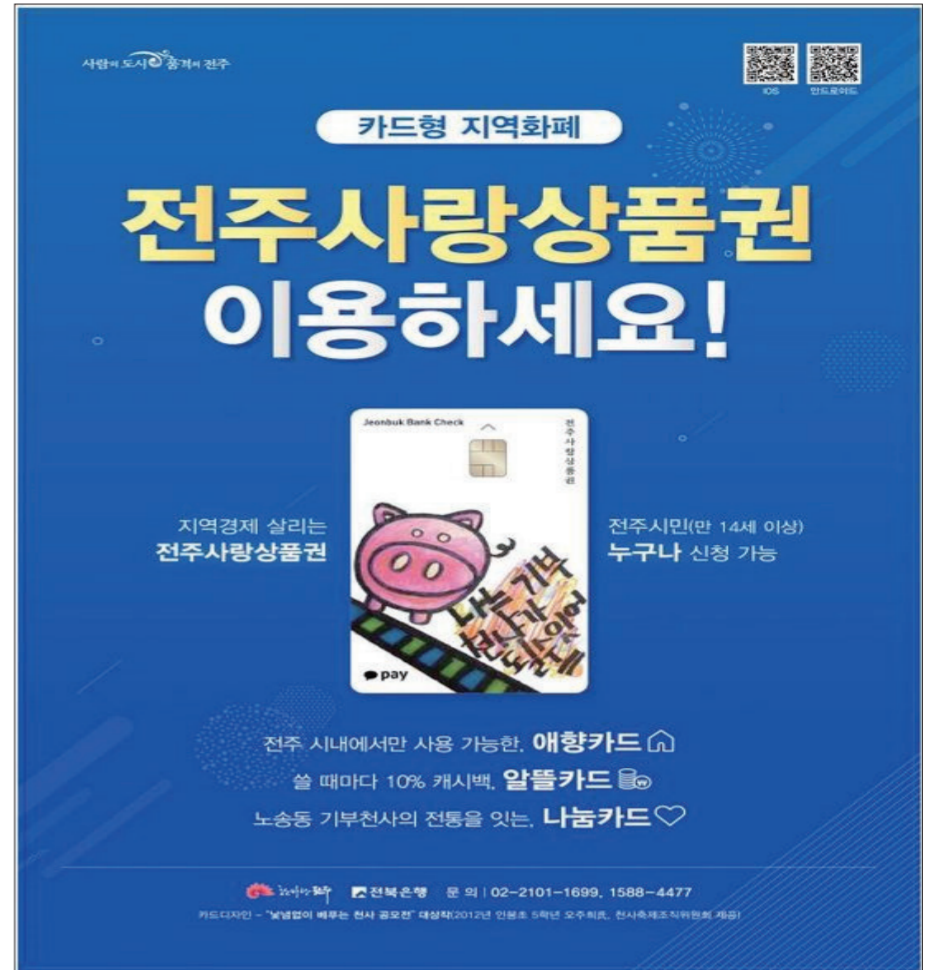
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공동연구기관인 전주대학교는 전주한옥마을 현황조사,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와 만족도 조사,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여일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IT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관광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현재 우리 생활에 알맞은 스마트 관광을 한 발 앞당기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승일/기자

전주형 지역화폐 다음 달 2일 발행

전북은행 43개 지점에는 시민서포터즈를 배치해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 본격화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이 다음 달 2일 발행된다. 월 구매 한도는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주시는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는 당초 전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정했으나 전주의 인구규모와 타 지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월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일은 다음 달 2일로 확정했다. 시는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일자와 규모 등이 확정됨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권 운영을 맡을 전북은행 43개 지점에 올 연말까지 시민서포터즈를 배치해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모바일 앱 설치를 돕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방법과 전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일부를 자율 기부하는 기부천사가맹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1일 시민서포터즈와 동 주민센터 직원 등 78명을 대상으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정호 ㈜전북은행 카드마케팅팀장과 김성우 ㈜KIS정보통신 기획실장이 강사로 나서 상품권 발행 취지와 사용방법, 민원 응대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충전이 가능한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카드 신청방법은 전주사랑상품권 앱 설치 후 신청하거나 전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품권은 사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5만원까지 할인액을 적립 받아 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단, 10% 할인은 정해진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한정된다. 시는 향후 전주사랑상품권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천사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부금액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공공사업에 활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경제 활성화 모델"이라며 "전주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익산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공동주택 2만여세대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익산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역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21일 도내 최초로 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의 7%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모현동 이지움과 팔봉동 더테라스아트리체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해 분양되고 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 1천300세대를 특별공급한다. 현재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3개 단지, 682세대이며 민간, 공공에서 계획 중인 임대주택은 7개 단지, 4천 239세대로 2025년까지 총 4천921세대가 공급된다. 시는 이 가운데 1천300세대를 주변 임대 시세의 70~85%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시는 아파트 건립 시 분양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거주자 우선공급 사항 등을 고려해 분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이자 지원한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주택 가격과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대 6년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직장인은 미혼자 연소득 1억원 이하,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5천만원 이하야 지원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1억5천만원 이하이거나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으면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초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공급 대상이 고시됐으며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익산지역은 하반기 모현동 이지움, 팔봉동 더테라스아트리체,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마동 현대힐스테이트와 마동공원 GS자이,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후 5년간 최대 약 2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규 주택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28만 인구를 사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아동이 살기 좋은 장흥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정종순 군수 "아동 권리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 만들 것"

장흥군이 지난 1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4대 권리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10가지 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장흥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9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례제정, 아동친

화도 조사연구 용역,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군민 100인참여 원탁토론회, 어린이 의회, 어린이모니터링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장흥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중인 지자체 중 전국 군 단위 5번째,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하

며 4개년 추진계획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4년 이후에는 유니세프 심의위원회의 통해 상위단계 인증을 받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아동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은 구성원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건강한 지역"이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0개막

홍천군은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초 국제 어린이 시각예술 축제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 지역의 환경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순수함과 무한한 상상력을 예술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예술축제로 야외공간을 활용한 설치미술, 작가와 주민이 협업한 참여형 아트,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적 지역재생 등 공공예술적 의미를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총 10개국 119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360여 작품을 선보이며 평화, 자연, 연결의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는다. 행사 주제는 '그린커넥션: GREEN CONNECTION'으로 강원 지역의 자연, 환경, 평화를 의미하는 그린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평화를 상징하는 연결의 합성어다. 특히 강원도만의 지역 특수성이 부여된 공간에서 열려 화제가 됐고 지역 재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린이를 통해 재조명할 수 있는 생명, 순수, 자유 등에 대한 기획으로 문화예술계의 기대와 독려를 받고 있다.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0'은 8개 분야로 진행된 국제 그림공모전, 발달장애어린이와 영재교육원 소속의 영재들의 그림 전시 등 대한민국 영재들의 미술 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전시가 될 예정이다. 총 10개국 119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360여 작품을 선보이며 평화, 자연, 연결의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의 행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이며 코로나19로 야기된 비대면 사회 상황에 맞추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형태로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온라인 전시 투어,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아트 클래스, 모닝 킬링, 명사와 교육전문가들과의 유익한 토크 등 차별화된 어린이 시각 예술프로그램들이 편성된다. 임옥상, 최정화, 한석현, 홍승혜, 빠키, 아트놈 등 국내 스타급 예술가를 비롯해 에바 알머슨 포함 9개국 13명의 해외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아티스트 박스'는 오직 강원키즈트리엔날레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아티스트 박스'



강원 키즈트리엔날레 개막
2020. 10. 22(목) 오후2시
유튜브 : 강원국제예술제

란 참여 작가들이 오직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한정판 예술 체험 패키지다. 작가의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해 현대미술부터 교육적 의미까지 더해진 고미술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0 온라인 라이브 편성표와 아티스트 박스 배포 관련 사항은 10월부터 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최근에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 외에 온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충실히 준비했다"며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도 관람객과 작가의 안전을 고려해 사전예약제 운영, 온라인 전시관 등 시대 맞춤형 신개념으로 축제를 이끌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동원기자

세종시립도서관 '시민의 서재' 채워주세요

범시민 도서기증 캠페인...공립도서관 15곳서 22일부터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에 개관하는 세종시립도서관 1층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인 '시민의 서재'를 조성하기로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 기증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책 읽는 세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세종의 역사를 담은 책 등 양서 기증받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도서관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증받은 도서는 세종시립도서관 1층에 조성할 공유서가 '시민의 서재'에 비치해 지역 커

뮤니티 중심으로서 세종시립도서관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기증대상 도서는 출판연도 2016년 이후, 상태 양호하고 내용 건전한 도서 희귀자료, 향토자료, 비도서 등이다. 이 캠페인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2일부터 기증할 도서를 지참해 공립도서관 15곳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서 기증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되며 추후 세종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양질의 도서를 기증한 사람에게는 서가에 명패를 붙여 소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최재은기자

2021년 세종시립도서관이 준공됩니다
세종시민 도서기증 캠페인

21년 준공되는 세종시립도서관 1층에는 시민 여러분의 기증도서로 '시민의 서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 참여하여 양서들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증안내

- 기간: 2020.10월 ~ 세종시립도서관 개관시까지
- 장소: 북강공공도서관 11개소 및 공립직영도서관 4개소 (한솔, 도당, 마포, 홍천, 고령, 고령남, 보행, 대평, 서평, 신원, 대평, 호지왕, 장군, 관매, 호정)
- 참여방법: 방문 또는 우편 기증(기증신청서 제출) * 기증신청서 다운로드 * 세종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ejong.gov.kr)
- 문의: 세종시립교육지원과 및 각 도서관 (☎: 044) 3007-3953

기증 가능한 자료

- 2016년 이후 출판된 도서
- 세종시 향토자료, 희귀자료(발행연도 무관)
- 건전하고 상태 양호한 비도서 자료 등

기증 불가능한 자료

- 정치, 수필, 문예, 사전 등
- 전집은 소장가능한, 같은 책 여러권 불가
- 훼손된 책이나 훼손이 있는 자료
- * 기타 신청처(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부적합한 자료

기증시민 우대사항

- 기념품 제공, 기증정보 홈페이지 게시, 기증자 명단 설치, 감사패 증정 등
- * 매우 양질의 도서 기증 시 수량에 따라 상급으로 가능합니다.

테미오래에서 즐기는 3일간의 쉼

테미오래 제2회 Ole Arts Festival 개최

테미오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옛 충남도 관사촌 일원에서 '제2회 올레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접촉, 비대면의 일상으로 지쳐있는 시민과 지역예술인의 만남의 장을 마련,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테미에서의 쉼'을 주제로 진행된다. 23일 오후 6시부터 '오다-Stage I'에서는 전문 디제이 감성동의 진행으로 축제 참석자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과 사연을 즉석에서 신청해서 들려주는 라디오스타 치유음악다방과 초대가수 공연이 전야제 행사로 열린다.

24일에는 '즐기다-Stage II' 현대무용, 마임공연, 댄스, 색소폰4중주와 함께 가을 선율이 물들 수 있는 관현악 공연이 축제를 채워주며 '테미문화마을프로젝트' 일환으로 펼쳐지는 지역예술인의 프리지 공연과 테미오래 2기 국내창작레지던시 작가의 감성콘서트 '여기는 테미오래 플플마켓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다양한 프리지 공연과 함께 대전재즈협회 주관으로 '가을밤의 여유로운 휴

가-Stage III'를 통해 가을밤 차안에서 즐기는 낭만 뮤직 페스티벌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 함께 관사촌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1호관사'에서는 '해설이 있는 박물관' 문화여행과 박물관 시극 '숨은 꽃', '2호관사'에서는 '스피드프라모델조립대회'와 '코스튬플레이컬링대회'가 '5호관사'에서는 계룡문고 주관으로 '밖으로 나온 향토서점: 책 읽는 일요일' 프로그램이 '9호관사'에서는 '아일랜드더블린이야기 콘서트: 마시고 웃고 이야기 하고'가 열린다. '스토리북작가협동조합'의 '문학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전쟁 70년: 지역작가간담회'는 마을상점 '카페209'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테미오래 김미정 총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시민의 문화취터로서 테미오래는 다양한 기획 전시와 차별화된 공연 행사 등을 마련해 시민 모두에게 위안을 드려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는다"며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3일간 연속으로 펼쳐지는 행사인 만큼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함께 '드라이브인콘서트' 같은 내실 있는 공연과 주요 이벤트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치러져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 휴게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별 헤는 밤, 방구석 논술여행' 중천철학도서관 청소년 논술 강좌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5회 운영

중천철학도서관이 원주지역 청소년을 위한 논술 강좌 '별 헤는 밤, 방구석 논술여행'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 논증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논증의 생각요소 사고의 명료화', '통일성과 응집성 글의 논리관계', '지시논리 논증도 그리기' 등을 통해 논술의 기초를 다지고 11월 25일 '실전독해' 강의로 마무리하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중·고등학생 3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천철학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중천철학도서관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0. 10. 28. ~ 11. 25. 매주 수요일 19:00 ~ 21:00

2020년 중천철학도서관 논술강좌
별 헤는 밤, 방구석 논술 여행

신청기간: 2020. 10. 23.(금) 10:00 ~ 선착순
대상: 원주시 중·고등학생 청소년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문의: 중천철학도서관 737-4480

홍성군, 광천~은하 잇는 군도 1호 전면 개통

홍성군이 농번기 차량 교통 불편 해소와 농어촌지역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군도 1호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광천읍과 은하면을 연결하는 군도 1호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으나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이 교행하기 어렵고 급경사, 선형 및 노면이 불량해 도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구간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총사업비 88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연장 2.7km, 폭 8.5m의 2차선 도로로 확포장했으며 국도 21호선부터 군도 23호선 연결구간을 전면 개통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광천읍과 은하면을 연결하는 이번 도로개통으로 교통체증 해소,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농수산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가능해짐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을 통해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 수혜 지역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재난과 전염병에 관한 '영화 인문학'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총 4회 운영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2020년 김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과 전염병에 관한 '영화인문학' 강좌를 마련한다.

'영화 속 재난, 인간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나?'를 주제로 배피어와와의 인터뷰에 담긴 불안과 절망 컨테이전과 전염병 라이프 오브 파이와 폭풍 늑대아이와 타인의 의미 등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너무 재

밋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등의 저서를 집필하고 다수의 기관에서 영화 인문학 강의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안은태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오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10월 22일부터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원주시민 3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랜만에 열리는 대면 강좌인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가을의 정취와 더불어 영화 인문학을 즐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도서관 권위의 인문학
영화 속 재난, 인간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나?

10. 29.(목) ~ 11. 19.(목) 10:00-12:00

대상: 원주시민(30명)
강사: 안은태(작가)
장소: 문화강좌실 101호
신청: 10월 22일(목) ~ 홈페이지-전화 선착순 접수
문의: 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737-4482

강의 내용

- 1회: 배피어와의 인터뷰에 담긴 불안과 절망: 인간의 삶에 불행도 찾아오는 불행과 절망.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 2회: 컨테이전과 전염병: 여기서 못한 컨테이전의 흔적. 전염병이 남긴공포의 흔적.
- 3회: 라이프 오브 파이와 폭풍: 거대한 폭풍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파이.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 4회: 늑대아이와 타인의 의미: 공포를 이겨내고 낯선 타인과 함께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 위 일정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원주대학교문화재단 | 원주 | 원주도서관 | 원주 | 원주 |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태인면 최강술 씨,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선정'쾌거'

'보람 찾는 농민' 분야 대상, 농업 가치 제고에 헌신

정읍시는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에서 태인면 최강술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삼락농정 대상은 '보람 찾는 농민, 재깁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이다. 태인면에 거주하는 최강술 씨는 '보람 찾는 농민' 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최 씨는 정읍지역 최초로 국립종

자원 버 보급종 재종단지를 유지했다. 10년간 대표로 역임하면서 재종단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단지 선정에 기여했으며 일반 버 재배 농가 대비 133%의 수입 증대를 이끌어냈다. 또, 감자연구회를 조직해 오리온 제과와 감자 납품 계약을 체결, ha당 12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해냈다. 이와 함께, 태인면 이장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면민들의 화합단결을 이끄는 지역 리더로 활동하면서 삼락농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강술 수상자는 11월 9일 예정된 '2020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와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 우선 위촉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락농정 수상의 영예를 정읍시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농민·농촌·농업이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비정상회담 이집트 대표 새미 멘토가 시흥에 왔다

학교로 찾아가는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

시흥시가 21일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글로벌특강-멘토와의 만남' 강연에 방승인 새미사라드를 초청했다. 새미사라드는 이집트 만수라 출신이다.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3년에 한국으로 유학 온 것을 계기로 현재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생활 8년차 이집트 대표 민간외교관이다.



특히 JTBC 비정상회담에서 이집트 대표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MBC every1 대한외국인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날 특강에서는 새미는 "한국을 좋아해 한국 이름을 '정새미'로 지을 만큼 한국을 사랑한다"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특강에서는 '나를 넘어 내 곁에 있

는 이웃사람, 이웃마을, 이웃나라'에 대해 글로벌 시대 세계문화와 다양성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시흥시 각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관점과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특강은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11개

교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 글로벌 특강-멘토와의 만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원격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김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스테이 스트롱 동참

문순자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영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 최영순 한국자유총연맹회장 지목



김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21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현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 이겨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응원 문구를 담은 로고를 만들어 SNS에 올린 뒤 캠페인을 이어갈 친구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김경희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뒤 문순자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장, 신영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 최영순 한국자유총연맹회장을 다음 캠페인 대상으로 지명했

다. 김 회장은 "4000여명의 전주시여성단체 회원을 대표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 간 사회적 거리두기

는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가운데 방역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서안성푸드뱅크 우수 기부자 (주)토담,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서안성푸드뱅크는 2020년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우수 기부자를 선발해 표창을 하는 자리에서 서안성푸드뱅크의 우수 기부자인 토담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토담은 떡볶이 떡과 소스, 냉면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 9년 동안 서안성푸드뱅크에 연 6회 이상 기부를 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을 주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번 표창은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이 취소되어 서안성푸드뱅크 박면호 대표가 대신 전달했다.

토담 이태엽 대표이사는 전달식에 앞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큰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안성푸드뱅크 박면호 대표는 "안성시 관내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기업이 드물다. (주)토담에서 기부되는 떡볶이 떡과 냉면류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게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됐다. (주)토담에 진심으로 감

사드리며 (주)토담의 이와 같은 행보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주)참고을 김윤권 대표, 2020 모범중소기업인 대통령표창 수상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 최정운 대표는 총리표창 수상 영예

김제시에 소재하는 (주)참고을의 김윤권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 최정운 대표가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부포상'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정부포상'은 '모범중소기업인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국가경제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중

소기업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포상이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윤권 대표는 장류 및 식용유 제조업체인 (주)참고을의 대표로 최근 지평선산단에 209억원을 투자해 신규공장건립을 완료하고 40여개의 신규일 자리를 창출해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대만·태국 등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진행하고 일본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등 우리식품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총리표창을 수상한 최정운 대표는 곡물가공품 및 조리식품 제조업체인 (주)한우물의 대표로 쌀과 농산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한우물을 관련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2018년부터 약 259억원

의 신규투자를 통해 지역내 약 17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농산물을 지역농가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먼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주)참고을의 김윤권대표와 (주)한우물의 최정운 대표의 금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주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그 성과를 인정받고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김제시도 기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오도창 영양군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오도창 영양군수는 21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요원, 돌봄, 환경미화, 운송, 배달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항상 응원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든 사진을 영양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오도

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송인용/기자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안전하고 저렴하게 문화 생활 즐기세요~

정부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4개 분야 소비할인권 재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15일부터 잠정 중단됐던 8대 소비할인권 가운데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4개 분야가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돼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대구 지역 문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연기됐다가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1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이미 매진된 공연 등을 제외하고 '이상한 나라의 안이수' 등 5개 공연에 소비할인권이 적용, 10월 25일 온라인 예매 시부터 1인당 8천원이 할인된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기획공연도 할인이 적용된다. 10월 30일과 31일에 열리는 '베크처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첫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지방 최대의 소공연장 집적지인 대구 남구 대명공연거리에서는 대구힐링공연예술제가 지난 8월부터 열리고 있는데,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공연은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버스정류장', '두평반' 두 공연으로 역시 1인당 8천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힐링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지역의 사립박물관 4곳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 소재 '박물관 수'에서 열리고 있는 '소장 자수 전시회', 동구 '자연염색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자연염색과 사진예술과의 어울림' 등으로 온라인 예매처 '문화N마켓'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입장료의 4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대구미술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인



터파크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푸릇푸릇뮤지엄', '매그넘 인 파리'도 예매사이트 이용 시 1천원 ~ 3천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카드사별 정해진 기간 내 누적 8만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 행사 관람

을 위한 이번 할인 혜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계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우울증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문화 향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사랑-인도문화축제 연계 '김해의 날' 개최

온라인 공연-인도영화제 등 온·오프라인 다채

김해시와 주한인도대사관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허왕후 신할길 축제를 대신해 오는 23일 하루 온택트 방식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김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와 인도는 물론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함께 김해시청 로비 전광판으로도 생중계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해의 날은 김해시와 주한인도대사관의 문화·관광 분야 업무협약 이후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관광 분야를 주한인도대사의 제안으로 '사랑-인도문화축제' 연계 행사로 마련됐다. 사랑-인도문화축제는 주한인도대사관과 인도문화원이 2015년부터 국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연례 축제로 사랑은 한두어로 다채로운, 아름다운을 의미한다. 온라인 행사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인도시간 낮 12시 30분에 허성근 김해시장과 주한인도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시립가야금단 가야



금 공연, 왕후의 춤, 오디시 인도 고전무용 공연, 미라클러브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해문화의전당 예술극장 씨네마루에서 인도문화원이 제공한 총 3편의 인도 영화 'Newton', 'To Let', '마헤쉬네 프라티카람'을 상영하는 인도영화제가 마련된다. 허성근

시장은 "김해와 인도가 함께 하는 이번 김해의 날 행사가 전 세계에 가야 왕도 김해를 알리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금관 5중주 '브라스마켓'과 함께하는 하우스콘서트

깊어가는 가을 밤 클래식 of 춤과 사랑을 느껴보세요

깊어가는 가을 밤 군산예술의전당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한국종합예술학교 출신의 트럼펫, 호른, 트럼본, 튜바 금관 5중주 '브라스마켓'의 하우스 콘서트를 마련했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 중심으로 관객들이 무대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공연자와 관객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에는 이야기, 퍼포먼스, 즐거움이 가득한 나팔수의 세상을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부터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클래식의 춤과 사랑이란 주제로 금관악기만의 독특한 감성을 통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라북도과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다. 전석 무료로 운영되나 비대면 티켓운영을 위해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 가능하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연장 방역 및 관객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무관중 라이브 중계 가족 아동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가족 음악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공연이 오는 23일 11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무관중 라이브 중계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주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활동이 뜸해져 문화예술을 접하기 더 어려워진 환경을 감안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가정에서 공연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

인 생중계 공연으로 기획했다. '가족 음악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국내에서 아동 중심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음악을 소재로 아동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 어린이들의 음악 감수성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극단 '오디'가 제작했다. 음악과 연극, 다채로운 무대 효과를 통해 시각적인 예술교육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악 체험극이다. 특히 해와 달, 나무 등의 다양한 소품과 음악, 연극으로 표현되는 동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어머니의 희생과 오누이의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갈등을 극복 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소통과 공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호기자



"가을이 익어가요" 27일 여수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저녁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 소리꾼 고영열 협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의 길목에서 음악의 길은 여운을 느끼게 해줄 연주회가 찾아온다. 여수시는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시립합창단 제7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을이 익어가요'라는 주제로 여수시립합창단 단원 44명과 소리꾼 고영열 등 외부출연자 25명, 총 69명이 출연해 가을밤을 풍성하게 수놓는다. 존 루터의 제즈풍의 곡들로 무대의 막을 올리고 Turtle Dove 등 외국 민요풍의 곡과 한국 전통 가곡 '여수', '금강에 살으리랴다' 등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특히 팬텀싱어3에서 준우승을 한 소리꾼 고영열과 함께 하는 춘향가 중 한 대목인 '사랑가', '이별가'를 피아노와 함께 연주한다. 이어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북과 춤꾼이 어우러진 신명난 놀이판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대공연의 막을 내린다. 휴식시간에는 행사장 로비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지역인재 바이올린 연주자 김보현 양과 아버지의 피아노 연주가 하모니를 이룬 인터미션 콘서트도 진행된다.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약자, 학생은 20% 할인된다. 입장권은 기독교백화점, 가을문고 크리스찬백화점, 청음악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

내는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뮤지컬로 만나는 평화통일'...영등포구 창작 뮤지컬

오는 23일 영등포아트홀 개최... 코로나 예방 위해 소규모로 진행

영등포구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두드림, 영등포가 연다' 행사를 개최한다. 구가 서울통일교육센터와 손잡고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공모에서 선정된 교육사업이다.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장르의 공연을 통해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며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공감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전지원 KBS 성우가 사회를 맡았으며 전현준 국민대 교수의 '평화변영시대'를 향한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 '명사특강'과 함께 창작 뮤지컬 '그날 우리는'이 펼쳐진다. 또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3중주 앙상블 연주가 선을 보이며 구민들의 가을 감성을 자극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당초 많은 구민들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별로 일부 인원을 선발, 총 50여명의 구민들을 초청해 현장 공연을 개최하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되는 대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공연 당일 유튜브 참여 링크도 전송해 공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 실황 영상은 11월 12일 오후 4시부터 영등포구청 유튜브 채널 '영구네'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18년 비무장지대에서 이틀간 '통일기원 어린이 평화단 캠프'를 운영하며 평화·통일·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기금운용, 민간 교류지원 등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뜻깊은 자리"며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일기자

'전북형 뉴딜' 신규사업 50건, 4조 2,872억원 발굴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등 사업보완 후 본격 추진

'전북형 뉴딜' 2차 추진위원회 개최

전북도가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형 뉴딜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215건 사업 외에 추가로 50건의 전북형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지난 8월에 열린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전북형 뉴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한 신규 국가사업을 발표했다. 각 분과별 사업을 살펴보면, DNA 생태계 및 비대면 산업의 1분과 12건 2조 5,500억원, SOC 디지털화 2분과 8건 2,500억원, 인프라 녹색전환 3분과 12건 8,598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4분과 6건 2,724억원, 녹색산업 생태계 5분과 6건 1,750억원, 마지막으로 고용 사회 안전망 및 사람 투자 6분과 6건 1,800

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임성진 수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북형 뉴딜 정책을 통해 전북은 한 단계 도약하고 전북형 뉴딜 정책은 그 자

야는 SK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해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2건 2조 5,500억원이다.

- 대표사업인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을 융합한 형태로 신기술 전력망 구축, 규제자유특구 지정,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큐베이션 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인프라 녹색전환 분야는 환경·동진강의 생태문화 기능복원을 통한 하천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환경·동진강 생태문화 복원사업' 등 12건 8,598억원이었다.

- 대표사업인 '환경·동진강 생태문화 복원사업'은 기존 환경·동진강에 습지, 탐방로 등을 조성해 생태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분야는 전기 모빌리티 전송효율 최대화를 위한 '다중무선충전시스템 상용화 및 실증 사업' 등 6건 2,724억원으로 - 대표사업은 '다중무선충전시스템 상용화 및 실증사업'은 기존 충전시스템의 공간확보 문제, 안전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 모빌리티 전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녹색산업 생태계 분야는 '산업단지 중심 미래형 사용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 6건 1,750억원으로 - 대표

사업인 '산업단지 중심 미래형 사용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산업단지 중심 기반구축사업으로 산업단지별 특화 기업혁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하고자 한다. SOC 디지털화 분야는 '지능형 콜드체인 항만물류 거점조성' 등 8건 2,500억원으로 - 대표사업인 '지능형 콜드체인 항만물류 거점조성'은 식품산업 거점과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도·습도 관리, 콜드체인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군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및 사람투자 분야는 '커뮤니티 복합형 뉴딜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6건 1,800억원으로 - 대표사업인 '커뮤니티 복합형 뉴딜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혁신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형, 혁신기관, 대학, 기업 등을 통해 발굴된 국가사업 이외에 지역뉴딜 사업을 추가해 전북형 뉴딜 비전 설정에 따른 추진전략, 주요사업별 목표치 제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자영업자도 이베이·쇼피·쿠팡 등 수출 도전하세요"

관세청, 해외 전자상거래 입장에서 FTA까지 순회 교육 실시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쿠팡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서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27일부터 1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서류의 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석 비용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박상찬/기자



서울시, 워드 코로나 시대 주거복지모델 구축 '2020서울주거복지포럼'

서울시는 '워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부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주거복지포럼은 자치분권화 시대의 주거복지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행해졌다면, 자치분권화 시대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와 민간이 이양해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 구축의 필요성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포럼이다.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에서는 포럼의 원년으로 '지방분권화', '주거복지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각 단계별 지방분권화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포럼에는 회당 평균 100여 명의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의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은 관련 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해 시정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인

주거복지정책 방향 모색과 정책이슈 발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워드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인해 코로나 실직, 주거비 부담 가중 등이 증가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주거지원 서비스 시설의 폐쇄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단절로 주거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워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립과 정책이슈 발굴을 위해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사회학, 미래학, 사회복지학, 건축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의 주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복지를 다시 생각하다'로 선정해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1차 포럼에서는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현상 고찰을 시작으로 2차 포럼에서는 워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마지막 3차 포럼에서는 비대면 사회에서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 전달체계

모색하기 위한 '주거복지와 테크놀로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1차 포럼은 '주거복지의 새로운 방향: 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현재 코로나까지 위기 이후 주거복지 기본권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후불량 주거,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경제위기 및 팬데믹 등 극단적 위기 이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불평등의 양극화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배경을 감공기 교육을 통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선제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토론해본다. 23일부터 진행되는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모바일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해 시작된 서울주거복지포럼은 공공이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이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을 떼었다"며 "올해 이어진 포럼을 통해 위기 시대에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묻고 새로운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세종 스마트도시 사업 한눈에 본다

20일부터 사업관리 운영 규정 시행...사업별 추진현황도 공개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도시 사업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스마트도시 사업관리 운영 규정'을 20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맞춰 스마트도시 사업 현황도 일방에 공개한다. 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현재 36개 부서에서 69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사업에는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 지능형 영상관제 및 시민 안전 대응 서비스 등 시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도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알람서비스를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리빙랩 운영도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관리역량을 기반으로 전체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스마트시티 사업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 시행으로 전체 스마트도시 사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을 체계화하고 일원화된 기준에 따른 점검·보완으로 각 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행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한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세종 스마트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 스마트도시 이해도와 체감도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사이소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 풍부
영양충분 만든 빛깔산 고춧가루
검색 사이소에서 만나다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벵골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동문건설,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2차' 23일 견본주택 오픈

전용 59~84㎡ 1134가구...후분양, 내년 8월 입주 예정

동문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지제역 동문굿모닝힐맘시티 2차 견본주택을 23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지제역 동문굿모닝힐맘시티 2차는 지하 1층 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1134가구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면적 △59㎡A 218가구 △59㎡B 346가구 △59㎡C 166가구 △74㎡ 250가구 △84㎡ 154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11월 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화) 1순위 해당 지역,

4일(수)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75%, 추점제 25%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 당 900만 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20%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50%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수)이며, 정당 계약은 11월 23일(월)부터 26

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신촌지구는 동문건설이 총 5개 블록에 4833가구의 동문굿모닝힐맘시티 아파트를 짓는 브랜드타운으로, 평택지제역 동문굿모닝힐맘시티 2차는 평택 최초로 전체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분양 아파트이다. 공사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이 높고, 무엇보다 내년 8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 맘스 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5층 4개 동에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다. 특히 이곳에 서울 강남 대치동 명문 학원 타운을 유치해, 입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작

년 9월 개교한 평택새빛초교가 있으며,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평택에서 서울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됐고, 지하철 1호선과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도 가까워 서울 진입이 빨라졌다.

길 건너편에는 쌍용자동차 본사가 있으며, 종합물류단지, 평택 일반산업단지, 안성원곡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도 많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는 확보된 총 6개의 반도체 공장 부지 가운데 절반이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약 483만㎡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도 한창

이다.

단지 설계도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조성했다. 평면은 4베이 구조(일부 제외)로 개방감이 돋보이며, 전 가구 파우더 룸을 제공하고, 주방과 침실, 거실 등 집 안 곳곳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했다.

맘스카페, 키즈카페,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많다. 특히 지상 1층에는 영·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보육실도 조성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멀티룸,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등 여가와 취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했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10-1 일대에 있으며, 코로나19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http://ptmom2-dmapt.c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31-651-7733

김남주/기자

